

# “고향방문 자제를”...완도군 추석 ‘이동 멈춤 운동’ 눈길

코로나19 확산 방지 교육책  
낚시어선 통제 행정명령 이어  
섬 방문 통제 등 방역 안간힘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이동 멈춤 운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섬 방문 통제, 낚시어선 입출항 통제에 이어 나온 조치로 완도군의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명절 군민과 향우들을 대상으로 ‘이동 멈춤 운동’을 발한다.

추석 민족 대이동이 코로나19 확산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전라 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취지다.

완도군은 군민과 향우들에게 귀성 또는 역귀성 자제를 당부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추석 명절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각 마을 대표, 기관 사회단체장, 향우회장 등 700여명에게 발송했다.

또 발초 대행서비스를 통해 대행료를 최대 40% 할인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고향을 찾지 못하는 향우들을 위해 부모님과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출로 사는 어르신 697가구에는 완도군행복복지재단과 연계해 추석 명절 음식나눔 서비스를 지원한다.

앞서 완도군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낚시어선 129척에 대해 입출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또 지난달 29일부터 청산도와 노화도, 보길도, 소안도를 대상으로 관광객과 출항인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28일부터 29일, 4월 4일부터 5일, 4일간 낚시어선 조업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두 번째로 행정명령 발동이다.

이는 6개월 넘게 청정지역을 유지해 왔던 완도군에 지난달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완도군은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낚시어선 입출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완도군 제공>

완도군 확진자는 서울을 방문해 외지인과 접촉 감염된 사례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안전이며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일이 최우선”이라

며 “가족들을 만나지 못해 아쉽겠지만 이번 추석에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유모차 살균기로 아이 건강 지켜요”  
진도군, 보건소에 살균소독기 설치



진도군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진도보건소에 유모차 살균기를 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유모차 살균기는 자외선과 적외선으로 각종 생활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제거하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제품으로 작동법도 간단해 부모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특히 유모차 살균기는 15~30초 이내에 자외선 살균 램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99.9% 신속하게 살균 소독처리된다.

또 유모차와 카시트, 장난감 등 아기용품은 물론 어른신 보행 보조차, 휠체어까지 소독이 가능해 군민 누구나 간편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육아 필수품 중 하나인 유모차는 외부 환경에 노출이 잦아 세균 번식과 오염 등으로 세탁이나 청결 유지가 쉽지 않아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유모차 위생 문제에 고민이 많았는데 살균기 설치로 유모차 위생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도=박형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15년 뒤 해남, 인구 9만 생태문화관광도시로 거듭난다

2035년 기본계획 수립

해남군이 15년 뒤인 2035년 ‘인구 9만의 생태문화관광도시로의 성장’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7일 해남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해남의 도시 미래상을 ‘골고루 잘사는 생태문화관광도시, 행복해남’으로 설정한 ‘2035년 해남군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기본계획은 2035년 해남군의 미래상과 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간계획을 비롯해 정책 수립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장기적인 로드맵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수해 지난 7월 전남도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

목표 계획인구는 9만명이다. 이는 국가 계획인 솔라시티공업도시 계획인구 총 3만6600명의 40%인 1만4640명과 기타 개발사업 등을 통한 사회적 증가 인구 2만4000명을 반영했다. 해남군 인구는 8월말 현재 6만9274명이다.

**?**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에정용지  
시가화용지는 시가화가 형성된 개발지역으로 기존 토지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정비하는 토지이며, 시가화에정용지는 도시 발전에 대비해 개발촉진과 개발가능지역을 중심으로 시가화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

기본계획에는 1도심(해남읍), 1부도심(기업도시), 2특화거점(송지-관광-휴양, 계곡-물류-유통), 11지역중심(삼산-화산-현산-북평-북일-옥천-마산-황산-산이-문내-화원)의 도시공간구조와 4개 생활권(중부, 서부, 남부, 기업도시)으로 발전계획을 담았다.

특히 해남읍 장애인복지관 일원에 복지거점을 조성하고, 보건소 및 해남병원을 중심으로 한 공공의료 중심지 육성을 위해 시가화용지(주거용지)를



해남군이 ‘2035년 기본계획’을 통해 15년 뒤 ‘인구 9만의 생태문화관광도시 비전’을 제시했다. 사진은 해남읍 전경. <해남군 제공>

계획했다. 문내면과 황산면은 청사 신축에 따라 면소재지 행정 및 공공시설 중심지를 시가화용지로 승인했다.

해남군은 앞으로 시가화용지 및 시가화에정용지에 대한 실현계획 등을 2030년 군 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광농협, 38억 들여 영광읍에 로컬푸드직매장 개장

영광농협이 로컬푸드 직매장을 신축, 지난 5일 개장했다. <사진>

영광농협은 영세·중소농업인의 농가소득 증대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사업비 38억원을 들여 영광읍 백학리에 마트 및 로컬푸드 직매장을 건립했다.

영광농협은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에 앞서 지난 3년간 농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다. 앞으로 로컬푸드 출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및 착형 지도·지원을 강화해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

한 직매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정길수 영광농협 조합장은 “생산자인 농민은 자식같이 애써 키운 농산물에 대해 값을 못 받고 있으며, 소비자는 유통물류 비용으로 인해 농산물을 비싸게 구입하는 것이 농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이라며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은 시작에 불과하고 행정과 보조를 맞춰 농산물이 제값 받는 그날까지 계속 그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압해·증도 등 25개 마을 안길

신안군, 184억 들여 3년간 정비

신안군은 시설 노후와 상·하수도 관로 매설 등으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은 마을 안길을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신안군은 3년간 군비 등 총 184억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올해(35억원)는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등 6개 읍·면 25개 마을 29km 구간을 대상으로 했다.

내년에는 지도읍, 자은면, 비금면 등 76개 마을 56km 구간에 89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에는 60억원을 들여 흑산면, 안좌면, 신의면 등 50개 마을 37km 구간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노후 안길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시행으로 마을 안길이 평평해져 어르신들의 보행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도로 물 고임 구간 해소 등으로 산뜻한 마을 환경이 조성돼 사업 완료에 따른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군은 설명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 매매 물건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 경매 물건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622.57㎡(18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3,574,77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영광군 대마면 송죽리  
토지 : 18875.5㎡(5709.8평) 건물 : 6386.82㎡(1932평)  
**감정가 : 5,994,297,460원**  
**최저가 : 4,196,008,000원(70%) 유찰 1회**

**공장** 전라남도 함평군 대동면 백호리  
토지 : 10323.1㎡(3122.7평) 건물 : 1155.94㎡(349.7평)  
**감정가 : 1,892,743,280원**  
**최저가 : 1,324,920,000원(70%) 유찰 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